

도내 건설수주액 전년比 감소

도내 건설업계가 여전히 수주액 침체 국면에 머무르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. 동북지방통계청의 '8월 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'에 따르면 도내 건설수주액은 4,8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.4% 감소했다. 국내 건설수주액 12조9,225억원의 3.8% 수준이다. 올 7월 4.5% 하락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폭락했다. 발주자별로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각각 45.4%, 0.4% 떨어졌다. 특히 공공 부문은 발전·송전, 옥회전기, 통신, 학교·병원, 관공서 등의 수주 감소가 하락 양상을 이끌었다.

건설업계에서는 올림픽 관련 각종 SOC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.

윤종현기자